

“카네기 홀에서 연락와 깜짝 놀랐다”

쇼팽 콩쿠르 최초 한국인 우승자 조성진, 우승 후 1년 소감

서정적인 기운을 물씬 풍긴 품은 채 격정적으로 다채로운 표정을 짓는 듯한 쇼팽 발라드 1번이 흘러갔다.

쇼팽 콩쿠르 최초 한국인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22)이 16일 오전 해화동 JCC아트센터에서 들려준 쇼팽 발라드 1번에는 “제안하고, 가정하고, 던지시 말을 건네고, 유혹하고 설득한다”(앙드레 지드 ‘쇼팽 노트’)는 쇼팽의 모든 것이 녹아 들어있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갈라 콘서트에서 앙코르로 들려준 녹턴 20번은 한층 무르익어 있었다. 목직합의 여운을 이어가는 서정성이 일품이었다.

조성진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벌써 1년이 됐어요 아직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온 해 중 가장 빨리 지나간 한 해”라고 웃었다.

콩쿠르 우승 전후로 달라진 점에 대해

서는 “전보다 e-메일이 많이 온다는 점 이요”라고 미소지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정작 본인은 유명세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가끔 계시기는 한데, 제 인생이나 일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원하는 연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뀌기는 했지만 좋게 바뀐 것이니 긍정적이지요”

자신의 본격적인 피아노에 기반한 미니 지멘트사인 솔레이와 계약한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 직후 미니지멘트사와 음반사(도이치 그라모폰) 결정이 힘들었다고 했다. “11월초 런던에서 연주를 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무려 30쪽에 달하더라고요. 계약 관련 전문 용어도 처음 보고 협상을 안 해봐서 변호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조성진이 존경하는 거장 피아니스트이자

197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선생님을 일본에서 만나 의견을 여쭙봤죠. 그 때 하였던 말씀이 너의 직관을 믿어라였어요. 그렇게 선택했죠”

조성진은 오는 25일 생애 첫 스튜디오 정규 앨범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발라드’를 발매한다. 도이치 그라모폰(Dauche Grammophon)과의 전속 계약 이후 발매하는 첫 스튜디오 앨범이기도 하다. 조성진을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이끌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수록됐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이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야드레아 노세다가 함께 작업했다. 협주곡과 함께 쇼팽 발라드 전곡을 담았다. 한국에서만 발매되는 디럭스 버전에는 쇼팽 녹턴 20번이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됐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의 경우 지난 6월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

발라드 전곡과 녹턴은 지난 9월 독일 함부르크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할대에서 녹음을 마쳤다.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공간에서 녹음한 영국 록밴드 비틀즈, 거장 지휘자 카라워의 사진을 보며 “실례고 신기하기도 했다”고 부끄러워했다. “노세다 선생님과 런던 심포니도에도 호흡도 잘 맞아 수월하게 녹음했어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할대는 조성진이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인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의 슈베르트 즉흥곡을 녹음한 장소라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홀로 작업한 발라드 전곡 녹음이 힘들었다고 했다. “협주곡은 사람도 많고 호흡하는 느낌이 있는데 솔로 스튜디오 레코딩은 큰 공간 안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려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고립된 느낌도 있었다”는 것이다.

/뉴스



김종선 ‘Friends-예술인의 초상’ 사진전

문화예술가의 인간적인 면모·고뇌·갈등·삶의 편린들을 고이 담아낸 사진집이 전시장에 펼쳐진다.

사진작가 김종선이 전북문화예술인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17~30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황량한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문화예술 관을 짜고 있는 예술인들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작품 속 예술가들은 세간에 연일 오르내리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얼룩진 얼굴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으로, 진지한 예술인이 배어났다.

사진에는 발레리나 성지선, 배우 김재현, 한국무용가 박차은, 대금연주가 이창선, 현대무용가 윤보라, 한국무용가 고경보, 기타리스트 안태상, 연극인 조민철, 연출가 권지인, 극작가 광범향, 해금연주자 고은현, 한국화가 이철규, 연극인 고조영, 가야금연주자 배유경, 조각가 엄혁용, 아티스트 곽승호, 한국무용가 김미선, 디자이너 김병철, 서양화가 이주리, 음향감독 이동욱, 연극인 김경민, 미디어아티스트 탁영환, 다원예술가 한영애, 랩퍼 우타유, 소리꾼 조민지, 다원예술가 심홍재, 소리꾼 황애리, 현대무용가 김솔기, 소리꾼 조선하, 국악인 조용안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인의 삶과 예술 면면이 포착돼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촬영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면 ‘작가의 연출’이 개입된다고 생각해,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의 고유한 색깔을 포착해내고자 했다”고 한다. 마치 ‘사진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김종선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을 전공했다. 2009~2015 극단 관 포토그래퍼를 비롯해 2012·2014 전주세계소리축제, 2015 홍보지 전주에 오면, 2015 전북브랜드 공연 춘향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포토그래퍼로 활약 중이다.

“다음 작품에서는 무형문화재 41인을 사진에 담고 싶어요” /정해은기자

김제예술회관서 몰도바 국립 방송 교향악단 공연

가을밤의 끝자락에서 몰도바 국립 텔레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악의 선율이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17일 저녁 7시에 ‘힐링 나눔 음악회’ 이란 주제로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스타니슬라프 우체프 지휘자와 루마니아 문화대사 및 아시아의 작은 거인 한류 열풍의 주역인 강민석의 지휘로 열린다.

이번 지휘를 맡은 강민석지휘자는 2001년 1월 중세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Sibiu 필하모닉에 초청되어 지휘자로서 유럽에 데뷔 하였고 2002년 10월 한국인 최초로 부키레스트 라디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전 유럽에 생중계 된 후 큰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뛰어난 음악적인 해석과 지도력으로 세계의 30여개 오케스트라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으며 한국적 정서가 담긴 프로그램으로 유럽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지휘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루치니 서곡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시작으로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트라치 트라치 폴카”, “전통과 번개 폴카”, 가곡으로 “교향의 노래”와 “정산에 살리라”, “그리운 금강산” 마지막으로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가 주최하고 전통생활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천연염색전시회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 개관식은 지난 11일 있었으며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자연의 색... 정읍을 물들이GO’ 전시회

20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천연염색한 200여점

정읍시가 주최하고 전통생활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천연염색전시회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 개관식은 지난 11일 있었으며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자연의 색, 정읍을 물들이GO’다.

전시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천연염색 전문교육을 수료한 회원 26명이 직접 염색하고 정성 들여 만든 조각보 등 200여점 이상을 만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우리네 전통 삶의 지혜와 깊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자연색의 다양성을 만

낄 수 있는 전시회’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2010년 조직된 전통생활기술연구회 회원들은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은 현재도 매월 정기적인 과제 모임을 통해 농림 부산물의 활용 가치 증진과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염색 기법과 규방 공예 기술을 꾸준히 익히고 있다. 회원들은 특히 서로간 재능기부로 환경친화적인 의류나 생활용품 제작기술을 익히고 개발하면서, 평생학습축제 등의 각종 행사 개최 시 전통문화 보급과 체험 홍보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918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인간 세계를 교화하는 석가여래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동·서방의 정토를 다스리는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삼불형식을 보여준다. 삼불형식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이 삼불상은 1654년에 벽암각성(1575~1660)의 문도들이 주축이 되어 수 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인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시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풍성한 양감이 강조된 인간적인 얼굴에 단순하고 기백 넘치는 주름 표현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조각이 추구한 평담하고 대중적인 미의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또 보물 제1920호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은 식별한 승형의 지장보살상과 제왕형의 시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 평등대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덕분에 1654년 3월 당시 불교계를 대표했던 벽암각성(1575~1660)의 문도들이 주도한 불사임을 알 수 있으며, 조각승은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을 만들었던 해심 등 15인의 조각승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통통한 얼굴과 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한 형태미가 두드러지며, 시왕상은 지옥 중생을 심판하는 사실적인 연출과 함께 고색 찬연한 채색이 돋보이는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명부조각이다.

/정해은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17일>

▷쥐띠
46년생: 손재수는 있으나 사람을 얻는다.
63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2년생: 동기근로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먼저 베풀라.
84년생: 처음에는 힘든 운이나 후반에는 잘 풀리니 고민하지 말라.

▷소띠
49년생: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큰 것을 일으키고 하면 인연이다.
61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73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나 손을 내밀어라.

▷호랑이띠
50년생: 사교수가 따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74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친구나 동기근로와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말라.

▷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지출은 미리 계획.

▷용띠
52년생: 잠시 놀랄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니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76년생: 관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
89년생: 관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말띠
54년생: 좋은일 하고 뽐 맞는 격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6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걱정마라.
7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90년생: 식욕이 따르니 모임을하거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

▷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라.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나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

▷원숭이띠
5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68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쁜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충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과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개띠
48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60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무를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에 결성이 따르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때.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